제8호

북한 『로동신문』 사설 분석

2021-2 (3월/4월)

이기동 (한반도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목 차

1. 사설 목록 ····· 1
2. 주요 특징 ····· 2
3. 개별 사설 특징 ····· 6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설 목록

순서	일자	제목
1	3. 1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자
2	3. 2	애국의 마음 안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가자
3	3. 8	녀성들은 애국헌신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오늘의 총진군에서 혁명적 본분을 다해나가자
4	3. 9	금속공업은 경제건설의 1211고지이다
5	3.11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자
6	3.13	령도업적단위들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견인해나가자
7	3.17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 진군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8	3.20	인재관리, 인재육성사업을 혁신하여 발전과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9	3.25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창조로 받들어나가자
10	3.29	완강한 공격전으로 인민들이 반기는 실제적인 결과를 이루어내자
11	3.30	증산투쟁, 생산돌격전으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자
12	4. 5	봄철영농사업을 힘있게 다그치자
13	4. 5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를 과학으로 들고일어나는 해로 만들자
14	4.10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의 기본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당강화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자
15	4.1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자
16	4.21	전당의 세포비서들은 우리 당의 초급정치일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자
17	4.25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항일빨찌산의 위훈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2

주요 특징

◆ 1990년대 후반 선군정치의 등장과 더불어 사라졌던 '공산주의미풍선구자'라는 용어가 재등장함으로써 향후 자본주의적 생활풍조 척결을 위한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시사

- 북한은 1993년 12월 '전국 공산주의미풍청년선구자대회'를 최초로 개최한 후 1997년을 마지막으로 개최하지 않다가 2015년에 '공산주의'가 빠진 '전국 청년미풍선구자대회'로 개명하여 재개
- 이로 볼 때, 8차 당대회 시 '공산주의' 용어 재등장에 따른 연동조치의 일환으로 판단

◆ 산림복구사업의 현재적 의의와 중요성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발전 지장과 결부시켜 설명

- 재해성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재해복구에 많은 노력과 설비, 자재가 소모되어 경제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나무심기사업을 통해 자연재해의 근원 해결을 주문
- 남북한 식수협력과 기상협력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 철강재 증산 등 금속공업부문 성과를 다른 부문에서의 증산과 "경제발전의 다음단계로 이행"을 위한 담보로 규정

* "철강재의 생산수준이자 전반적인 5개년계획수행률이고 금속공업의 역할에 자립경제의 운명이 달려있다"

- 금속공업부문 성과 →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부문 등 기간공업부문 활력 → 농업, 경공업, 수산업 활성화의 연계성 강조
-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통한 금속공업의 자립적 토대 강화를 강조한 것은 금속공업이 제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

◆ 5개년계획 수행 첫해인 올해의 농업생산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

- 농업생산이 상승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2019년 불리한 기상여건 하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달성했던 사례를 제시

- 동시에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 간고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알곡증산 방도, 그리고 믿음직한 애국농민들의 존재를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 적시

◆ 5개년계획 첫해 수행에서 방직공업과 비단공업부문의 성과를 강조

- 상기 부문은 매년 연간계획을 3배, 4배, 심지어 5배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

- 동 부문 노동자들의 높은 생산 열의의 결과라기보다는 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지식경제시대에서 '강국' 및 '선진국'의 위상과 인재육성사업의 관련성을 설명

- △지식경제시대 강국의 지위는 영토의 크기나 자원의 다소가 아니라 인재의 다소에 의해 결정 △선진국의 영예는 남보다 더 많은 인재를 갖고 그 능력을 잘 발양시켜 나가는 나라만이 보유 △한순간이 아니라 세기를 이어 융성번영해야 진정한 강국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인재들에 의해 사회적 진보가 추진되고 인재진영의 구축여하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원리는 절대 불변

◆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사업은 연말에 5개년계획의 첫해 성과를 평가하고 선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모범사업임을 강조

*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부강과 번영에로 나아가는 오늘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상징하는 주되는 전선으로 된다"

- 동 건설사업은 제재상황하에서 자원(시멘트와 골재, 그리고 대규모 노동력 등)과 재원('돈주'들이 보유 중인 자금 등)의 자체 조달이 비교적 수월하고 완공 이후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추정

-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입각한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중대한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

- 문제는 금년 여름 대규모 수해 발생 시 피해지역 살림집건설과 같은 수해복구사업과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지 주목

-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면 별문제 없지만, 재원과 자원을 평양시 살림집건설에 집중할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할 것이고, 수해복구사업에 전환할 경우 "중대한 정치적 사업"에 차질 발생이 불가피한 딜레마 상황 봉착

◆ 과거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주로 군대가 참여한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사업 역시 군대가 주도하는 사업임을 기정사실화

* "당중앙이 5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제일 믿는 것은 당과 인민에게 끝임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가 기본전장을 타고 앉아 영웅적위훈을 떨쳐야 전반적인 살림집건설에서 확고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 지난해 6월 7일 개최한 7기 13차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대책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한 데 이어 평양 중심의 시혜정치를 재현

-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양주민에 대한 특혜로 비쳐져 지방거주민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가능성에 주목

◆ 8차 당대회 이후 언급 빈도가 급격히 감소한 "정면돌파전"과 "정면돌파사상"을 언급하면서 "난관극복의 방도이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지름길"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언급 빈도 추이에 주목할 필요

* "우리가 오늘의 총진군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보다 적극적인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하며 순간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완강하게 돌진하는 여기에 난관극복의 방도가 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지름길이 있다"

* "정면돌파전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현 국면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는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며 전진방식이다. 당의 정면돌파사상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어떤 역경도 두려움없이 돌진해나가려는 결사의 각오로 충만된 사람에게는 침체와 답보라는 말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 "당이 제일 고심하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라는 표현을 통해 2019년 대비 지난해의 식량생산 감소로 인한 식량사정 악화를 우려

-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은 북한의 2020년 식량작물생산량을 2019년 대비 -5.2% 감소한 약 440만톤으로 추정

◆ 5개년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당장 시급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공개

- △주체철 생산공정에 합리적인 예열기술 도입 △북부지구 갈탄을 이용한 선철생산 기술 준비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에 필요한 촉매 국산화를 위한 기초연구

◆ "혁명위업 계승기, 새로운 발전기"라는 표현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8차 당대회 이전까지 9년을 '혁명위업 계승기', 8차 당대회 이후를 '새로운 발전기'로 규정

- 북한은 이미 8차 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발전기,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였으므로 8차 당대회 이전을 '혁명위업 계승기'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

◆ 세포비서들의 빠른 세대교체와 부족한 경험으로 인한 당세포 운영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최의 중요한 배경임을 토로

* "전당적으로 보면 세포비서들의 교체가 빠르고 갓 사업을 시작한 세포비서들이 적지 않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전당의 세포비서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세포사업을 함께 토의도 하고, 지도적방조를 주면서 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의도라고 말씀하시였다"

◆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상징어로 '현명성'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사용

- 수령의 초월적 능력보다는 현실적 업적과 자질을 중시하는 수령 위대성 교양(선전) 추세를 반영

* "당과 국가의 존엄과 위력이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현명성에 달려있다. 수령의 위대성이자 당의 위대성이고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이며 혁명위업의 불패이다"

3

개별 사설 특징 3월

❶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자(3.1)

❍ 집단주의 원칙에 의거한 난국 타개와 자력갱생에 기초한 번영의 활로 개척을 촉구하는 사설

- 당원들과 소속 집단 및 국가와의 운명공동체 형성 필요성 강조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를 대표하는 정치구호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난관 돌파를 주문

- △40년대 사회주의 제도수립기 등장 △50년대 천리마운동의 기적 창조 △70년대 노동당 시대의 전성기 구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극복 △2000년대 강국건설 대진군 전개

*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키자고 하여도 이 구호를 더 높이 들어야 하고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힘, 자립적발전능력을 비상히 증대시키자고 하여도 이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 상기 구호의 정치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

* "하나가 전체를 위한다는 것은 누구나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을 위하여 헌신한다는것이며 전체가 하나를 위한다는 것은 사회와 집단이 뒤떨어진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품어안고 도와주며 이끌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모든 사람들을 당과 조국,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참된 혁명가로 키우는 인간완성의 기치 ⇒ 이를 통해 혁명의 주체, 즉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강화 △자체의 힘, 단결의 위력으로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비축해나갈수 있게 하는 지름길 ⇒ 이를 통해 천리마시대 재현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나가게 하는 원동력 ⇒ 이를 통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 무력화

❍ **1990년대 후반 선군정치의 등장과 더불어 사라졌던 '공산주의미풍선구자'라는 용어가 재등장함으로써 향후 자본주의적 생활풍조 척결을 위한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시사**

- 북한은 1993년 12월 '전국 공산주의미풍청년선구자대회'를 최초로 개최한 후 1997년을 마지막으로 개최하지 않다가 2015년에 '공산주의'가 빠진 '전국 청년미풍선구자대회'로 개명하여 재개

- 이로 볼 때, 8차 당대회 시 '공산주의' 용어 재등장에 따른 연동조치의 일환으로 판단

❍ **집단주의 위력 과시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사회와 집단의 이익 속에 개인의 이익이 있고 국가의 번영 속에 자기행복이 있다는 확고한 관점 견지) △개인 이익, 단위 이익보다 나라의 전반적 이익 우선시 △국가적 입장에서 생산과 경영활동 진행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 찾아내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소한 요소와도 견결히 투쟁

-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수행을 위한 사회주의경쟁 전개 △천리마대고조 시기의 집단주의 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 전통 계승 △황철노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 기간공업부문에서의 성과 도출 △선진 단위가 후진 단위를 도와주고 선진경험 공유 및 일반화

- (서로 돕고 이끌며 시련을 함께 헤쳐나가는 대풍모 적극 살려나가기)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주고 불편해하는 사람을 부축해주며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덕행을 지배적 사회풍조로 만들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공감시키는 긍정의 싹, 미풍의 싹 적극 발굴 및 일반화하여 인간사랑의 대화원 꾸미기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 먼저 달려나가 값높고 보람찬 삶 빛내이기

- (당조직들의 역할 결정적 제고) △김정은의 이민위천, 위민헌신을 귀감으로 삼아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 △어려운 사람들을 어머니의 손길로 따뜻이 보살피기 △집단주의,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강화를 통해 개인이기주의 배격 및 집단이익 속에서 자기이익을 찾도록 만들기 △행정경제일군들이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도록 방향타역할 수행 △각급 당조직들과 책임일군들이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배척하고 단위사업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되도록 당적지도 강화

❷ 애국의 마음 안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가자(3.2)

❍ **식수절(3.2) 75주년을 맞이하여 나무심기를 권장하기 위한 사설**

- 8차 당대회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식수절로써의 의미를 부각하는 가운데 산이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식수사업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염원을 관철하는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은의 관련 업적을 선전

- 김일성이 1946년 3월 2일 모란봉에서 식수절을 정하고, 김정일이 2009년 10월 3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현지지도 사실을 적시

- 김정은 시기들어 각지에서의 양묘장 건설을 통한 나무모 생산능력 증대, 나무의 사름률(이식하거나 접목한 나무의 생존률) 증가,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 확립 등을 성과사례로 제시

❍ 산림복구사업의 현재적 의의와 중요성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발전 지장과 결부시켜 설명

- 재해성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재해복구에 많은 노력과 설비, 자재가 소모되어 경제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식수사업을 통해 자연재해의 근원 해결을 주문

- 남북한 식수협력과 기상협력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 산림복구사업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일애국주의에 입각한 식수사업 헌신) △후대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황금산, 보물산 만들기 △산림복구전투를 통해 자신의 충성심과 애국심 검열받기

- (수종이 좋고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나무들을 많이 심기) △김정은이 명명한 <금야흑송>(해송, 흑송의 일종인 곰솔이 변이한 소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심기 △밤나무, 잣나무, 단나무와 같은 산열매나무림 대규모 조성 △과학기술학습, 경험토론, 보여주기 등 실정에 맞는 식수사업 조직 △단위별나무심기경쟁 전개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토지를 기름지게 하는 것)를 잘하여 사름률 제고

- (강도높은 산림보호사업 추진) △산림침해현상과의 강력한 투쟁 전개 △실속있는 땔나무림조성사업 진행 및 산불감시와 병충해예찰체계 확립 △산불 발생시 조기 진화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준비 철저히 구축 △각급 산림복구전투지휘부에서 구체적 실태와 지대적 특성, 현실적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식수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작전과 지휘 수행 △산림조성계획과 산림담당제 엄격히 시행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실속있는 총화평가 진행

-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로 동원하기 위한 구호와 표어, 선전화 게시 등 사회적 분위기 고조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 총동원 △당일군들은 현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 구령 하에 대중들을 고무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적시에 대책 강구 △식수사업에 대한 인원동원으로 비상방역대책에서 사소한 비정상적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❸ 녀성들은 애국헌신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오늘의 총진군에서 혁명적 본분을 다해나가자(3.8)

❍ 3.8 국제부녀절 111주년을 맞이하여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여성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사설

❍ 김일성과 김정일의 여성권리 신장과 역할 증대 업적을 칭송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관련 업적을 선전

- 김일성은 여성해방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공고히하고, 김정일은 여성동맹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 발전
- 김정은은 여성들이 부강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유도

❍ 혁명과 건설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차지하는 의의를 설명

- △일편단심 자기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전통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전통적 풍모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주의 대가정을 가꾸어가는 미덕, 미풍의 주인공

❍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해 여성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받들기) △수령옹위의 기치를 높이 추켜세우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어떤 시련과 난관에 직면하여도 당만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 풍모 과시
-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전인민적 총진군의 영예로운 참전자되기) △5개년계획 첫해 성과 달성을 위한 창조적 지혜와 열정 기여 △농업과 경공업부문 여성근로자들의 국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 △과학, 교육, 보건, 체육부문 여성들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과 공화국의 위력 과시 △절약으로 나라에 보탬을 주고 경제건설에 이바지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통한 부강조국 건설에 헌신

- (서로 돕고 이끄는 국풍을 빚내고 혁명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꽃피우는데 앞장서기)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무 수행을 통한 가정과 사회의 단합 공고화 △남편과 자식들이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지원 △자식을 많이 낳아 혁명의 계승자로 카우기 위해 자녀교양에 깊은 관심 기울이기 △예의, 도덕과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전통에 맞는 옷차림과 몸단장하기 △민족음식 장려와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본분 다하기

- (여맹조직의 역할 제고) △여맹 안에 당중앙의 유일영도체계 확립 사업 추진 △여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육성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지도 실속있게 진행 △위대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 교양사업에 화력 집중 △다양한 대중운동 전개 및 여맹돌격대 활동과 예술선전대 활동 강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 분쇄 및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 척결을 위한 교양과 투쟁 강도 제고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사상관점과 일본새 일소

❹ 금속공업은 경제건설의 1211고지이다(3.9)

❍ **금속공업부문을 경제건설의 1211고지로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촉구하는 사설**

- 1211고지는 강원도 금강군지역 북측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6.25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벌인 곳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전략적 목표'를 상징(동 전투에서 사망한 이수복 영웅담이 만들어진 곳)

* "경제건설의 1211고지, 여기에는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자립경제의 기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전반적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집약"

❍ **철강재 증산 등 금속공업부문 성과를 다른 부문에서의 증산과 "경제발전의 다음단계로 이행"을 위한 담보로 규정**

* "철강재의 생산수준이자 전반적인 5개년계획수행률이고 금속공업의 역할에 자립경제의 운명이 달려있다"

- 금속공업부문 성과 →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부문 등 기간공업부문 활력 → 농업, 경공업, 수산업 활성화의 연계성 강조

-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통한 금속공업의 자립적 토대 강화를 강조한 것은 금속공업이 제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에서 차지하는 금속공업부문의 의미를 설명**

- △사회주의신념의 기둥을 더욱 억세게 세워주기 위한 중대한 정치사업 △영웅적인 투쟁역사와 전통을 지닌 나라의 맏아들공업

❍ **1211고지전을 본받아 금속공업부문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 (<강철로 당을 받들자!> 구호 하에 올해 목표 무조건 수행) △올해 중심과업인 철생산 정상화와 새로운 생산능력 조성에 역량 집중 △경제건설의 1211고지 고수를 위한 결사전에 총매진 △증산투쟁과 창조투쟁을 통한 1일 철강재 생산계획 반드시 수행

-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금속공업의 자립적 토대 강화) △금속공업 주체화 실현을 위한 생산공정과 설비들 정비, 보강 △생산능력확장사업은 5개년계획 수행의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 △제철소와 제강소에서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및 압연강재 생산토대 보강사업 적극 추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 철광산들의 생산토대 정비와 보다 합리적인 채굴방법, 박토처리방법 도입 및 선광실수률 제고를 위한 기술적 대책 수립 △주체철 생산체계의 기술적 완성은 무조건 수행해야 할 초미의 과제 △금속공업의 자립성 강화와 실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도입사업 추진 △주체철 생산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개조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 시급히 해결 △활발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전개 및 과학연구기관들과의 연계 강화

- (당이 제시한 철강재 생산목표 수행을 위한 집단적 혁신과 연대적 혁신운동 전개) △천리마시대 강철전선의 혁신운동 본받기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서로 연대하고 경쟁하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활발히 전개

- (금속공업부문 당조직의 역할 강화) △철강재 증산을 위한 사상교양사업 공세적으로 전개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자 국가의 법임을 생산자대중에게 각인 △행정일군들의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한 교양 및 지원 △과학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 △금속공업부문 당조직과 일군들은 후방기지와 문화정서 생활기지 조성 및 정상운영을 통한 노동자들의 공장애와 직업애 제고 △연관부문과 연관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활력 부여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등 경제지도기관들은 금속공업부문에 자금과 기술역량을 우선 보장 및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금속공업부문을 적극 지원하도록 경제작전과 지휘 전개 △전력, 석탄공업부문은 금속공장

들에 전기와 석탄 최우선 보장 △교통운수부문은 금속공업부문의 물류 적시 보장 △경공업부문과 도인민위원회들은 강철노동계급에게 노동보호물자들과 생활필수품, 부식물들 우선 보장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는 금속공업부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❺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자(3.11)

❍ 경제건설의 주타격 방향인 농업부문에서의 증산을 독려하는 사설

*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할 국가중대사이다"

- 식량 증산을 인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화해주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교양과 더불어 정책(시책) 성과를 통해 인민들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

❍ 농업 증산을 인민경제 전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요구로 규정

- 코로나19 등 현존 위협과 도전 속에서 내적동력 강화와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식량 자급자족이 긴요하며,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 등 인민경제 전반에 활력 고무 가능

❍ 5개년계획 수행 첫해인 올해의 농업생산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능히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

- 농업생산이 상승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2019년 불리한 기상여건 하에서 최고 수확년도를 달성했던 사례를 제시

- 동시에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 간고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알곡증산 방도, 그리고 믿음직한 애국농민들의 존재를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 적시

❍ 농업 증산을 위해 농업부문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올해 알곡생산계획 철저히 수행) △모든 농업부문일군들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올해 농사결과를 통해 평가받겠다는 각오를 갖고 사업 진행 △농업지도기관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임무에 맞게 사업체계와 지도관리방법 개선 및 자연재해에 대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방책 수립 △농업부문일군들은 당의 지령이자 국가의 법인 알곡생산계획을 결사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포전에서 작전과 지휘 전개 / 소극성과 보신주의, 관료주의와

허풍 척결 / 농업근로자들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 시행 △농업근로자들은 담당포전의 수확고는 애국심의 높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알곡생산 목표 무조건 수행

- (농업발전의 5대요소를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농사열풍과 다수확열풍 전개) △5대요소(종자혁명,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새땅찾기와 간석지 개간,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기계화)를 전략적 과업으로 견지 △정보당 수확고를 늘리기 위해 다수확 품종 육종, 재배면적 증대, 품종별 특성과 영농공정별 과학적 재배방법 확립 △결정적인 지력 개선을 위해 저수확지의 옥토화, 열두바닥파기 등 거름원천 최대한 동원, 다양한 유기농법을 탐구적용하고 범위 확대 △알곡재배면적 증대를 위해 간석지 건설과 토지정리 추진 및 농촌에서 빈땅찾기 실시 △트랙터와 농기계 생산단위들의 물질기술적 토대 확보 사업 계획적 추진 및 관개체계와 시설물 복원, 관수면적 확장

- (전당적, 전국가적 차원의 농업 지원)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 강화, 공업의 농업 지원, 전사회적 농촌 지원 △농촌에 화학비료, 연유, 전력, 농기계 부속품 등 적시 보장 △성, 중앙기관들의 농업부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역할 결정적 제고) △도, 시, 군당위원회는 농업부문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농업정책 관철 투쟁에로 적극 고무 추동하는 사업 중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사작전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철저히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경영위원회의 사업상 권위 제고를 통해 책임적 지도를 가능하도록 지원 △농촌초급일군 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를 위한 당적지도 강화

- (농촌리당사업에서의 결정적 개선) △초급일군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을 계발시키고 당대회 결정관철 독려 △다수확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집단적 경쟁운동을 통한 대열 확장으로 알곡생산계획 무조건 수행을 위한 당적지도 강화

❻ 령도업적단위들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견인해나가자(3.13)

❍ 영도업적단위들이 당정책 관철에서 모범이 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영도업적단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의 업적을 대표하는 단위를 의미

*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모든 단위가 따라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세심한 손길 아래 공장, 기업소, 농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은 해당 부문의 발전을 주도해나가는 선봉적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이 이룩될 수 있었다"

- 영도업적단위들이 5개년계획의 첫해 수해부터 모범을 보여야 수령들의 영도업적을 빛나게 할 수 있고, 대중들의 열의를 고양시킬 수 있다는 논리 구사

❍ 영도업적단위들에 담겨있는 지침들을 설명

-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및 비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름길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묘술 △대중 발동과 후방사업 개선을 위한 방법론

❍ 영도업적단위들이 8차 당대회 결정관철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들 제시

- (자기 부문과 단위에 깃든 영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 △자기 단위 개건현대화 및 높은 생산성과 도출로 영도업적 빛내이기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 집행정형을 건별로 따져보고 엄격히 총화하며 적극적인 조직정치사업을 통해 완전무결하게 집행

- (집단주의 구호를 높이 발양하는데 앞장서기) △집단이익과 국가이익 우선시 원칙 철저히 준수 △모르는 사람은 배워주고 뒤떨어진 사람은 이끌어주며 힘들어하는 사람은 도와주기 △천리마세대의 집단적 혁신, 연대적 혁신을 따라배워 서로 돕고 함께 전진하며 비약하기 △활발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과 사회주의 경쟁 전개를 통한 사회주의건설 진군속도 배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단위특수화, 본위주의 철저히 극복

-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사상 구현에서 모범되기) △과학기술발전에 주력하여 자기 단위를 과학기술의 본보기단위로 만들기 △인재발굴, 인재등용, 인재육성을 단위발전의 사회적 과제, 전략적 과업으로 틀어쥐기 △필요한 인재를 자체로 키우는 원칙 고수 △인재들의 역할 향상을 통한 제기된 문제 해결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하고 실천에 적극 활용할줄 아는 지식형의 근로자, 발명가, 창의고안의 명수로 준비

- (당일군들은 비상한 당적 책임감과 투신력을 지니고 자기 단위를 선두에서 이끌기)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 관철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능숙하게 작전하며 완강하게 실천 △순간의 자만과 답보도 허용없이 높은 목표 수립과 항상 강한 요구성 제기 △5개년계획 수행 첫해부터 자기 단위에서의 큰 성과 도출 유도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현지지도사적비,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등 교양거점 조성 및 교양사업 전개로 영도업적단위 일군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고취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회의 결정을 자체의 힘으로 관철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전개 △행정대행, 추미주의 철저히 경계 및 제기되는 문제를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 및 종업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지속적으로 개선향상

❼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 진군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개를 힘있게 떨치자(3.17)

○ 노동계급에게 5개년계획의 첫해 성과 관철을 독려하기 위한 사설

- 5개년계획 첫해 성과 총매진을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호소문(2.22)의 파급력을 높이 평가

*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이기 위하여 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할 역사적 중임이 우리 노동계급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 5개년계획 투쟁목표인 "자립경제 정비보강과 그에 기초한 생산 장성과 인민생활 개선, 향상"을 위해 노동계급이 견지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맡겨진 계획수행 무조건 수행)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투쟁정신 발휘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 더 많은 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 전개 △자기 힘을 믿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 일별, 주별계획 무조건 수행 △원료와 자재를 우리 땅에서 찾아내고 우리의 지혜로 만들어 생산 정상화의 동음 울리기 △과학기술자들만이 아니라 생산자대중들도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

-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새 기준, 새 기록 창조) △천리마대고조의 경험과 전통을 이어받아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총매진 △새 기준, 새 기록 창조를 통해 당에 대한 충성심 검증받기 △낡은 사고방식과 방법에서 벗어나 가장 합리적인 작업방법 탐구, 도입을 통한 생산 효율성 최대한 제고 △높은 목표 수립과 강용한 분발력, 결사의 투신력 발휘 △작업반의 역할 제고, 특히 생산자대중의 지혜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 발양시키고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모범적 역할 수행(검덕광산의 작업반장인 고경찬 영웅소대장을 모범사례로 적시)

- (과학기술을 통한 5개년계획 수행의 돌파구 개방) △인민경제 전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하고 자립경제를 정비, 보강하며 5개년계획 첫해 성과 수행을 위한 관건은 노동계급이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는 것("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계급은 지식형의 근로자") △자기 단위 현대화에서 자기 지혜 활용 및 최상의 수준 보장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한 전공부문과 연관부문과 관련한 폭넓은 지식 습득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에의 적극 참가를 통한 계획수행에 도움이 되는 창의고안, 기술혁신안 제안 △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 기술탐구와 창조 열풍 고양

-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 최대 발양을 위한 조직정치사업 강화) △당일군들은 계획수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 바로하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적시 대책 수립을 통한 생산자대중의 열의 고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생활조건 보장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 경주를 통해 맡은 일에 전념토록 만들기 △모든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은 노동계급의 정신력 발동을 위한 정치사업, 사상교양 사업 전개

❍ 방직공업과 비단공업부문의 성과 강조

- 상기 부문은 매년 연간계획을 3배, 4배, 심지어 5배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

- 동 부문 노동자들의 높은 생산 열의의 결과라기보다는 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❽ 인재관리, 인재육성사업을 혁신하여 발전과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3.20)

❍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혁신적인 인재관리, 인재육성 방침 관철을 촉구하는 사설

- 특히, 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경제사업조직,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관리, 당일군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

* "현시기 우리 당이 밝힌 인재육성전략은 각 분야의 과학기술인재뿐만아니라 착상력과 조직전개력, 장악력이 우수한 경영인재, 관리인재,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할줄 아는 당일군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 김일성과 김정일의 인재육성 업적을 칭송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도약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선전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및 인재강국화 노선 추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및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의 부단한 개선 △전국적으로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기지 조성

*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비할바없이 상승하고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은 난관이 중첩될수록, 현행과제들이 절박할수록 인재육성을 최우선중대사로 틀어쥐고온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를 떠나 상상조차 할 수 없다"

❍ **인재관리와 인재육성사업을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최선의 방략”으로 규정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

- △전진을 방해하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무능력 제거 등 내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모든 사업 혁신 △노력과 자금문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 △준엄하고 첨예한 외부환경 속에서 향후 5년간 나라의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확실한 담보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만들고 제일 강대한 나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름길

❍ **지식경제시대에서 ‘강국’ 및 ‘선진국’의 위상과 인재육성사업의 관련성을 설명**

- △지식경제시대 강국의 지위는 영토의 크기나 자원의 다소가 아니라 인재의 다소에 의해 결정(“인재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릉가”) △선진국의 영예는 남보다 더 많은 인재를 갖고 그 능력을 잘 발양시켜 나가는 나라만이 보유 △한순간이 아니라 세기를 이어 융성번영해야 진정한 강국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인재들에 의해 사회적 진보가 추진되고 인재진영의 구축여하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원리는 절대 불변

❍ **인재강국건설은 북한식 사회주의제도,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사회주의교육제도, 당의 인재강국화노선 하에서만 “전면적이고 빛나게 실현”할 수 있다고 선전**

-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들의 창조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고 최대로 발양시키는 원동력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창조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게 하는 기름진 토양 △**인재강국화노선**은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실현 가능한 투쟁방략

❍ **인재관리, 인재육성을 위해 견지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당의 인재관리, 인재육성방침에 대한 사상적 접수와 혁명적 관철) △인재발굴, 인재관리, 인재육성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당대회 결정에 대한 관점과 태도 △인재육성을 소방대식이 아니라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정치적 문제, 단위발전의 사활적 요구로 내세우고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강행

- (국가의 통일적이고 전략적인 지도하에 추진) △필요한 인재유형을 바로 정하고 인재양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며 요구되는 부문별, 지역별 인재수요를 정확히 타산 △국가지도기관들은 과학연구단위, 교육단위들의 역량편성관계를 정확히 타산 △특출한 재능과 실력을 가진 과학기술인재, 전문가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들의 능력을 국가사업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조치 강구 △과학기술자와 기능공을 비롯한 인재자원을 잘 보호, 관리 △아낌없는 인재육성 투자

-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인재농사에 착실히 품들이기) △모든 교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혁명인재 배출에 혼심 바치기 △교수내용과 방법을 선진수준에서 진행 △교육을 철저히 과학화하여 다방면적이며 실용적인 지식과 높은 창조능력, 건장한 체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 △도시와 농촌 간 교육의 질적 차이 축소 △국가비상방역사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교육내용과 형식, 방법 탐구적용 및 학생 교육에서 공백 최소화 △과학연구부문은 과학연구역량, 과학기술인재역량을 잘 만들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에 각별한 역량 집중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육성하는 원칙 견지 △단위책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자기 지역의 실태 파악 및 개선대책 모색 과정에서 인재발굴 및 그들에 의거하는 방법론 견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인재양성전략을 단계별, 연차별로 정확히 작성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규율 확립 △과학기술보급실 운영계획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그 정형에 대한 총화사업을 벌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과학기술인재로 양성

- (새형의 인재 육성) △실천형 인재, 과학형 인재, 창조형 인재, 집단주의정신이 강한 인재를 대대적으로 육성 △과학기술인재들이 제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면서 주체조선의 독점제품을 내놓도록 지원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영인재, 관리인재 발굴 및 의도적 육성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당의 사상과 의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며 당사업과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수행하는 당일군들을 많이 양성

-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실속있는 당적 지도 전개) △각급 당조직들은 적극적인 인재발굴, 적재적소 배치, 실력가형의 충실한 인재들로 일군대열 정간화(수령과 당을 결사옹위하는 정예로운 간부대열을 만드는 것) △경영관리일군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발전된 것을 지향해 나가도록 계발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사업실적을 보기전에 인재들을 먼저 보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과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세심히 돌보기 △현행 생산에만 급급하여 인재육성을 소홀히하거나 인재들을 무관한 사업에 동원하는 현상들을 개선

❾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창조로 받들어나가자(3.25)

❍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양 5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3.23)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 창조를 촉구하는 사설

- 3월 24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착공식 연설에서 "올해 초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는 5개년계획 기간에 전국적 살림집 건설을 하기로 하면서 수도에만 5만 세대, 매해 1만 세대씩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또한 김정은은 동 연설에서 “당 창건 80돌이 되는 2025년까지 해마다 1만 세대씩, 5만 세대 살림집을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 중인 1만6000여 세대의 살림집을 포함해 거의 7만 세대가 생겨 수도 시민들 살림집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동 건설사업은 연말에 5개년계획의 첫해 성과를 평가하고 선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강조

*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부강과 번영에로 나아가는 오늘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상징하는 주되는 전선으로 된다”

- 건설사업은 제재상황하에서 자원(시멘트와 골재, 그리고 대규모 노동력 등)과 재원(‘돈주’들이 보유 중인 자금 등)의 자체 조달이 비교적 수월하고 완공 이후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추정

-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입각한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

❍ 5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 창조의 의미를 설명

-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당의 존엄사수전(여명거리건설사업 착공 당시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추진하는 더 방대한 규모의 공사라는 점을 강조)

- 국가와 인민의 불가항력적 투쟁기상을 떨치기 위한 보람찬 사업(내부적 힘, 자기의 힘으로 동 사업을 완성할 경우 전진을 방해할 힘이 어디에도 없다는 철리를 만천하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역설)

❍ 과거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주로 군대가 참여한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동 사업 역시 군대가 주도하는 사업임을 기정사실화

* “당중앙이 5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제일 믿는 것은 당과 인민에게 끝임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가 기본전장을 타고 앉아 영웅적위훈을 떨쳐야 전반적인 살림집건설에서 확고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 지난해 6월 7일 개최한 7기 13차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대책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한 데 이어 평양 중심의 시혜정치를 재현

-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양주민에 대한 특혜로 비쳐져 지방거주민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가능성에 주목

❍ **5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전체 건설자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 간직하기) △당이 맡겨준 건설과제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당이 정한 시간에 무조건 완수 △신화적인 속도 창조 및 당대회 투쟁강령 실천의 선구자되기

- (군인건설자들은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 창조의 기치 들기) △제일 어렵고 힘든 작업을 맡아 전진의 돌파구 열기 △동 사업에서 시대적 본보기 창조하기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대의 전투적 기질 과시하기

- (사회주의경쟁 열풍을 통한 건설속도 최대화)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경쟁 고조 △선진 공법 적극 탐구적용, 건설경험 공유 및 일반화,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미풍 풍부화 △건설지휘부는 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고 총화를 정치적 의의가 있게 진행

-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 △시공의 질 제고 및 건설의 전 공정을 질보장으로 일관 △자기의 충성심을 검증받는다는 자세와 입장 견지 △건설감독부문의 역할 제고을 통한 국가의 건설정책, 인민의 요구와 이익, 건축의 안정성 철저히 보장

-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기) △자체의 건설역량과 설비, 기술역량에 의거하기 △노력절약형, 자재절약형 공법 적극 도입 △내각과 관련단위들에서 필요한 자재와 설비 적시 보장

- (인민군대 정치기관들과 건설부문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정치사업, 사상사업을 통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정신력과 창조적 지혜 남김없이 발양 △건설에 참여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건강과 생활보호문제 최대 중시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요구에 맞게 건설전역에 방역초소와 시설들을 빈틈없이 구비 및 방역규정 준수기풍 수립 유도 △군인들과 건설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위한 국가적인 보장체계 강화 및 규정된 공급량 준수를 위한 조직사업 전개

⑩ 완강한 공격전으로 인민들이 반기는 실제적인 결과를 이루어내자(3.29)

❍ **5개년계획의 첫해 핵심사업인 평양(수도)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공격전을 촉구하는 사설**

-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맥락에서 동 사업의 의미를 부각

*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

❍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현 단계)에 이어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결정적 시각에 있다면서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 성과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

- 따라서 “지금은 말이나 구호, 맹세가 아니라 실천이 중시되는 시기”라고 주장

❍ **올해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의 의미를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당의 존엄과 권위보호 차원에서 설명**

-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조건 보장 및 혁명적 기세와 열의 고조를 위한 필수적 요구) △인민을 위해 실천적인 성과,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은 사람이 진짜충신이고 애국자이며 인민의 참된 복무자 △모든 부문과 단위들은 인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수록 인민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이 승화된다는 점을 각인

- (당의 존엄과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 무조건 집행에 일심전력 경주 △당과 인민 앞에 자기의 충성심 검열받기 △기간공업부문은 전진의 돌파구를 열고, 농업과 경공업부문은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며, 교육과 보건 등 문화건설부문은 인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 필요

❍ **8차 당대회 이후 언급 빈도가 급격히 감소한 “정면돌파전”과 “정면돌파사상”을 언급하면서 “난관극복의 방도이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지름길”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언급 빈도 추이에 주목할 필요**

* “우리가 오늘의 총진군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보다 적극적인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하며 순간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완강하게 돌진하는 여기에 난관극복의 방도가 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지름길이 있다”

* “정면돌파전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현 국면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는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며 전진방식이다. 당의 정면돌파사상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어떤 역경도 두려움없이 돌진해나가려는 결사의 각오로 충만된 사람에게는 침체와 답보라는 말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자력갱생의 길”과 “굴함없는 공격전” 전개를 위해 견지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당의 정면돌파사상, 공격사상으로 철저히 무장) △김정은의 사상과 뜻, 발걸음과 동행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 장애물들을 단호히 제거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들을 강의한 정신력으로 돌파

- (명확한 전투목표 수립 및 끝까지 추진) △모든 부문과 단위들은 자기 단위의 잠재력과 연관 단위들의 실태, 향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분석하여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수립 △인재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지속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망목표를 과학적이고 공격적으로 수립 △토의, 결정한 과업들은 무조건 철저히 집행, 올해에 반드시 실천적 결실 가져오기(1일과제 수행 미달 불허)

- (일군들은 완강한 공격정신과 불굴의 투지로 대오의 선두에서 전투지휘, 현장지도 진행)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관점 척결 △언제나 당정책에 입각하여 중심고리를 찾고 첨입식으로 힘을 집중하여 전투목표 점령 △현실 속에서 비약과 혁신의 열쇠를 찾고 대중의 지혜와 창조력에 의거,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돌파구 열기 △<나가라>가 아니라 <나가자>의 구령을 외치며 맨 앞에서 대중 이끌기

- (당조직들의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 실속있게 전개)

⓫ 증산투쟁, 생산돌격전으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자(3.30)

❍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생산하고 적시에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착공 1주일도 안되는 시일에 일부 공사장에서 기초콘크리트치기에 착수한 사실을 선전

- 자재와 설비를 군대의 무기와 탄약에 비유하여 최우선 생산과 적시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

❍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중대한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 5개년계획의 첫해 성과를 평가하는 모범사업으로 설정하였을 가능성 농후

- 문제는 금년 여름 대규모 수해 발생 시 피해지역 살림집건설과 같은 수해복구사업과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지 주목

-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면 별문제 없지만, 재원과 자원을 평양시 살림집건설에 집중할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할 것이고, 수해복구사업에 전환할 경우 “중대한 정치적 사업”에 차질 발생이 불가피한 딜레마 상황 봉착

❍ 자재와 설비 보장을 위해 견지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은의 인민사랑 가슴깊이 명심) △살림집건설사업에 대한 주인의식과 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결사관철의 정신 견지 △매일, 매순간 김정은의 연설을 되새기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가다듬기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높이 발휘) △금속공업부문은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는 책임을 갖고 철강재 생산 결정적 증산 △제철, 제강소는 현존 생산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고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공사 진행 △건재공업부문은 시멘트 생산을 우선시하면서 필요한 자재들을 국내 생산으로 충족하기 위한 투쟁 전개 △연관단위들은 건설기계들과 변압기, 전동기, 펌프 등 설비들을 적시에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 전개 △철도운수부문은 증송투쟁을 통한 신속한 물동 보장

- (일군들의 역할 비상히 제고)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검증받겠다는 사상관점 견지 △맡겨진 과업수행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에서 가능성과 잠재력 최대한 동원, 이용 △현장 속에서 생산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 (당조직들의 당적 지도 강화)

3

개별 사설 특징 4월

❶ 봄철영농사업을 힘있게 다그치자(4.5)

○ 봄철 영농기를 맞이하여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올해 농업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봄철 영농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알곡증산단위들의 공통점은 봄철 영농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한 단위들이라고 주장

○ "당이 제일 고심하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라는 표현을 통해 지난해 2019년 대비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식량사정 악화를 우려

-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은 북한의 2020년 식량작물생산량을 -5.2% 감소한 약 440만톤으로 추정

○ 봄철 영농사업에서 일군들이 견지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5개년계획의 첫해를 변혁적 성과들로 아로새기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분발) △자신의 수준과 능력, 잠재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분투하기 △도, 시, 군 농장일군들은 알곡증산의 각오를 가지고 농장들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아래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요해장악하면서 과학기술적 지도를 선행 △현장 속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양하고 사전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대담하고 혁신적으로 사업 전개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생산계획 무조건 수행 및 자력갱생의 정신을 통한 애로와 난관 돌파

- (벼모판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실시) △씨뿌리기 시기를 바로 정하고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 근절 △평당 씨뿌림량을 규정대로 보장 △눈짐작, 손짐작과 같은 낡은 방식 대신 씨뿌리는 기계를 적극 이용

- (강냉이 심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 △토양관리 등 습도보장대책 수립 △우량품종의 종자를 반드시 피복하여 품종별, 재배방법별 평당 포기수를 기술적 요구대로 정확히 보장

- (적기에 논밭갈이 끝내기) △트랙터 만가동을 위한 예비부속품 확보 및 수리정비대책 수립 △트랙터 부속품공장, 농기계작업소들은 부속품의 종수와 생산량을 늘여 적시에 제공

- (관개시설 보수와 물확보 주력) △저수지 언제(댐)와 구조물 보수를 질적으로 수행 △양수설비 수리와 물길구조 보수 신속히 마감

- (부문별 영농물자 지원) △전력공업부문은 양수설비들의 만가동 보장에 요구되는 전력 제공 △해당부문은 화학비료, 트랙터, 모내는 기계들의 만가동에 필요한 부속품, 연유 등 제공

-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 제고)

❷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를 과학으로 들고일어나는 해로 만들자(4.5)

❍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동력에 의거한 5개년계획 첫해 수행을 촉구하는 사설**

-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형편”에서 과학기술은 전략자산이며, “현존 경제토대를 공고히 축성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생명선”으로 규정

❍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과학기술발전의 절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의 견인기적 역할”을 강조**

- 높은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정비전략, 보강전략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고,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

❍ **5개년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여는 올해에 과학기술부문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시급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공개**

- (절박한 경제기술적 문제 원만히 해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원 등 과학연구기관들은 주체철 생산공정에 합리적인 예열기술 도입, 북부지구 갈탄을 이용한 선철생산 기술 준비,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에 필요한 촉매 국산화를 위한 기초연구 주력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직면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도입 과제들을 기일 내 무조건 완수

- (과학기술 첨단화 사업에서의 실질적 진전)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새 재료, 새 에너지기술부문의 과학기술자들은 올해의 연구과제를 반드시 수행 △기초과학부문은 세계적인 기초과학성과 제시

- (과학연구역량, 과학기술인재역량 구축에 특별히 주력) △과학기술인재들이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전개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 과학기술인재 100% 장악 및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를 통한 자기 부문,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인재정보등록 완료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원격재교육체계와 자질향상체계 수립을 통한 자질과 수준 향상 △지적소유권보호제도 강화 대책 수립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사업조건, 생활조건 지원 △이를 위반하는 현상과의 투쟁 및 당적 통제 강화

- (당과 혁명, 시대 앞에 지닌 과학기술자들의 책임과 본분 완수) △국방과학기술자들의 충성심과 투쟁정신 따라배우기 △5개년계획 수행에 절실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종자와 과제를 대담하게 선정하고 사색, 탐구하며 하나 이상의 알찬 성과 제시

-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과학기술발전계획 수립 및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 확립) △성, 중앙기관들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 기술도입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실속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강력히 장악, 통제 △자기 부문과 단위의 관할범위에 속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고, 대학, 과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동연구 강화

-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당적, 정책적 지도 강화 및 과학기술행정사업 내실화) △과학연구부문 당조직과 일군들은 과학기술자들이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상공세 전개 △과학자, 연구사들에게 새로운 것을 많이 보여주어 눈을 틔워주고 보다 발전된 것을 지향하도록 계발하기 위한 당적, 정책적 지도 강화 △내각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적인 전략목표 점령과 경제의 자립성 강화, 인민생활 향상 등과 관련한 과학연구과제들을 중심으로 쥐고 다른 부문에로의 파급·연쇄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작전과 지도 집중 △국가적인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체계와 방법 개선, 강화를 통해 5개년계획 수행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 △모든 단위들이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법적 의무로 간주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규률과 질서 확립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들은 자기 부문,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사업의 주인이 되어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기풍 확립

❸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의 기본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당강화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자(4.10)

❍ **4월 6일-8일까지 개최한 제6차 노동당 세포비서대회를 기념하는 사설**

- 동 대회에서 김정은은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 제하의 결론에서 당세포들 앞에서 나서는 10가지 중요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

-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자"는 내용이 핵심 결론

*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밝혀주신 10가지 중요과업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의 당세포들을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기 위한 실천강령"

❍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최는 당 중앙의 지시와 방침이 말단 조직까지 원활히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단기층조직 강화를 통해 전당"을 강화하려는 의도**

- 전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과 인민의 혈연적 유대"를 공고히 해야 하고, 인민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세포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인식 내포

* "혁명의 계승기, 새로운 발전기에 당의 기층조직을 반석같이 다지고 당과 대중의 혈연적뉴대를 공고히 하는 것은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당세포강화는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이다"

❍ **"혁명위업 계승기, 새로운 발전기"라는 표현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8차 당대회 이전까지 9년을 '혁명위업 계승기', 8차 당대회 이후를 '새로운 발전기'로 규정**

- 북한은 이미 8차 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발전기,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였으므로 8차 당대회 이전을 '혁명위업 계승기'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

❍ **세포비서들의 빠른 세대교체와 부족한 경험이 당세포 운영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최의 중요한 배경임을 토로**

* "전당적으로 보면 세포비서들의 교체가 빠르고 갓 사업을 시작한 세포비서들이 적지 않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전당의 세포비서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세포사업을 함께 토의도 하고, 지도적방조를 주면서 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의도라고 말씀하시였다"

❍ **세계에는 사회주의정당들이 많지만 말단기층당조직책임자들의 대회를 여는 당은 '조선로동당'이 유일하다고 선전**

-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의 집행여부가 당세포의 역할에 달려있으므로 세포비서대회를 당대회 못지않은 품을 들여 개최하였다는 점을 강조

❍ **제6차 세포비서대회의 의의를 설명**

- (튼튼한 당의 기초 보강과 불패의 혁명대오 강화의 역사적 이정표) △모든 당세포들을 김정은과 사상과 뜻, 행동을 함께하는 공산주의집단화 △모든 세포들이 제곱미터당 책임제의 원칙에서 자기가 맡은 혁명진지를 고수하고 혁명화, 공산주의화 목표를 위해 투쟁

- (당대회 결정관철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과 방침들을 정확히 접수하고 관철투쟁 전개 △많은 애로와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위업을 개척해 나가는 데서 우연한 기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믿을 것은 오직 수백만 노동당원과 수십만 당세포비서들의 심장뿐

❍ **8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당세포가 견지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세포비서대회에서 제시된 과업 철저히 관철) △10가지 중요과업 철저히 관철하는데 주력 △당세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5대 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 전개 △당원들이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 하도록 유도 △5대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공세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

- (당규약의 요구에 맞게 당생활을 조직진행하고 자각적인 당생활 기풍 확립) △당규약 학습 강화 및 당생활 정규화, 규범화 △당원들이 높은 당조직 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유도 △입당대상자들을 엄선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 데 진력

- (모든 당세포들은 자기 단위를 사회주의사상과 도덕이 넘치는 견실한 집단으로 만들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구호 하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기풍과 도덕관 확립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원칙적으로 교양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당중앙의 두리에 묶어두기 △청년교양을 위한 역할분담 및 정상적 총화를 통해 청년교양에 대한 관심 제고 △사상과 제도를 위협하고 저해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 척결 투쟁 전개

- (김정은이 제시한 12가지 정치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사업하기) △당성, 원칙성, 정치성, 책임성, 이신작칙, 창발성, 군중성, 인간성, 진실성, 낙천성, 청렴결백성은 당세포들의 기본품성 △전당의 당세포비서들이 기본품성을 갖추고 조직과 집단을 위해 헌신 △12가지 기본품성을 언제나 명심하고 실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

- (세포사업에 대한 전당적 지원 잘하기) △각급 당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열을 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적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당세포비서들의 긍지와 영예감 제고 사업에 주력 △모든 당일군들이 당세포에 계획적으로 참여하여 군중과의 담화를 통해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 침투 및 세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

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자(4.11)

❍ 4차 당대표자회(2012.4.11)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2012.4.13)에서 김정은을 당과 국가의 최고지위에 추대한 지 9주년을 기념하는 사설

- 북한은 상기 두 정치행사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각각 추대함에 따라 모순을 피하기 위해 김정은을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
- 동 사설에서도 제1비서와 제1위원장 호칭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동 호칭 사용이 '불편한 과거사'였음을 시사

❍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상징어로 '현명성'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사용

- 수령의 초월적 능력보다는 현실적 업적과 자질을 중시하는 수령 위대성 교양(선전) 추세를 반영

* "당과 국가의 존엄과 위력이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현명성에 달려있다. 수령의 위대성이자 당의 위대성이고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이며 혁명위업의 불패이다"

❍ 지난 9년을 "주체혁명의 진퇴가 판가리되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로 정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업적을 선전

- △당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결정적 담보 마련 및 국가의 창창한 미래 개척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서의 존엄 확립 및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실현
- 지난 9년을 혁명위업 계승기로 규정한 것은 자신의 길이었던 사회주의의 길, 즉 인민경제 활성화와 인민생활 개선 목표에 미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식, 우리 힘, 우리 손"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정세 변화에 기대를 걸었음을 시사

-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정세 변화에 대한 능동적 순응에서 소극적 대응 입장으로 선회

❍ **김정은을 '위대한 향도자', '걸출한 영도자', '탁월한 정치가'로 묘사하면서 각각의 위상에 맞는 업적을 선전**

- (위대한 향도자) 시대의 변천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통찰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정식화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전략 마련 △사회주의강국 건설이론 심화 △적대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 극대화, 격변하는 정세 추이에도 흔들림없는 혁명적 신념 견지

- (걸출한 영도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이념과 정치방식으로 확립(김정은의 사상과 영도의 '중핵')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인민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일관 △모든 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이익 절대시 및 인민적 시책들을 복원, 확대하는 사업 우선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 강도 높은 투쟁 전개 △인민대중제일주의 실시 결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애착과 수호의지 강화, 당의 노선과 정책 결사관철 의지와 집단주의 의식 고양

- (탁월한 정치가) 자주의 혁명노선과 자력갱생의 기치하에 과감한 공격전 전개('자력갱생의 공격전략')로 △단기간 내 국가방위력 강화 실현 △가혹한 제재, 혹심한 자연재해, 세계적 대재앙 속에서 자체의 힘 증대 및 기념비적 창조물 건설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토대로 국제정치 흐름의 극적인 변화 주도 및 국가의 존엄과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경지로 제고

❍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은의 령도따라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충직하게 받들기 △김정은의 참된 혁명전사되기 △일심단결 저해요소들과의 견결한 투쟁 전개

- (결사관철의 혁명기상 남김없이 발양) △자력갱생, 자급자족 원칙하에 인민경제의 자립적 구조 완비와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결사투쟁 전개 △증산투쟁, 창조투쟁, 연속공격전 전개를 통한 투쟁목표 무조건 점령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 정상화와 개건 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적극 추동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전개를 통한 집단적 혁신, 연대적 혁신 확산

-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 강화) △5대 사상교양사업 부다히 강화 △초급당과 기층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당정책 관철사업에서 오분열도식 편향 극복 및 끝까지 추진 △사업능력과 실적으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검증받겠다는 입장에서 모든 사업 진행

❺ 전당의 세포비서들은 우리 당의 초급정치일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자(4.21)

❍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해 제6차 세포비서대회(4.6-8)에서 주문한 당세포와 세포비서들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사설**

*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우리 당의 독창적인 기층조직건설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고 전당의 세포비서들에게 명확한 행동지침과 세포사업의 묘술과 방법론을 구제적으로 밝혀주시었다"

-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이 세포비서들에게 부여한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것을 강조

❍ **당세포 강화 및 당의 단결력과 전투력 제고를 위해 세포비서들이 견지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은의 혁명사상과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 △김정은의 숭고한 풍모 따라배우기 △8차 당대회와 8기 2차 전원회의 문헌에 대한 깊은 연구와 체득 △세포비서대회 시 김정은이 제시한 10대 과업과 12가지 기본품성 체득 △실속있는 당정책 학습 꾸준히 진행

- (단결 중시 및 당원들을 인간적으로 단합시키는데 주력) △어려운 때일수록 집단 안에서 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 기풍과 도덕관 확립 △진정성과 소탈한 품성,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군중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 나누기 △자기 단위를 단합되고 전진하는 애국집단으로 만들기 △대중의 요구와 지향, 심리를 잘 파악하고 노동과 생활의 다양한 계기와 공간들이 모두 교양과정이 되도록하기

- (8차 당대회 결정관철에 세포사업의 화력 집중) △당생활 총화와 분공(업무분담) 조직, 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전투목표 달성에 철저히 지향 △당원들이 맡겨진 목표수행 과정을 통해 충실성 검증받도록 하기 △당원들의 생각과 실천이 하나의 흐름이 되도록 사상동원과 정신력 발동사업 진공적으로 전개 △과학기술, 집단적 혁신과 대중적 영웅주의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도록 고무추동 △뒤떨어지고 부족한 사람의 존재를 자기 책임으로 간주하고 해결방도 고민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적시에 시정하고 극복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결의목표 수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무조건 수행하도록 지원

- (세포비서들은 12가지 기본품성을 갖추어 당원들의 본보기되기) △언제나 대중 속에서 더 많은 일을 더 열심히 수행 △세포를 인간적으로 단합된 한식솔로 만들기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당원들을 교양하고 유도 △항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업뿐만 아니라 도덕과 문화적 소양 등 모든 면에서 대중의 모범되기 △어떤 특혜도 바라지 말고 더 고생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긍지와 보람 찾기

- (당조직들의 세포사업 적극 지원) △각급 당위원회는 세포사업의 개선, 강화에 자기 단위의 전진과 발전이 있다고 명심하고 세포비서들과의 사업에 품들이기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투철한 멸사복무정신, 혁명과업 수행에서의 모범적인 사람들로 세포비서대열 꾸리기 △당조직들은 세포비서들의 정치의식과 실무수준 향상을 당 위원회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정상적으로 총화 / 세포비서들의 긍지 함양과 사업조건, 생활조건에 관심 경주 / 당정책 관철을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경험 축적과 교훈 찾기 지원

❻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항일빨치산의 위훈은 영원불멸할 것이다(4.25)

❍ '조선인민혁명군' 창건(1932.4.25.) 89주년 기념 사설

- 2018년부터 건군절을 비정규군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서 정규군인 조선인민군 창건일(1948.2.8)로 변경

- "혁명 1세대들이 창조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가장 소중한 혁명전통으로 규정하면서 굳건히 계승할 것을 촉구

*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은 굳건히 계승되어야 한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수령이 차지하는 특출한 지위와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책동 또한 날로 가중되고 있다"

❍ 수령에 대한 항일빨치산의 충실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

- △수령의 안녕을 결사보위하는 숭고한 귀감을 창조한 선구자들("수령보위는 혁명투쟁의 승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지켜 견결히 투쟁한 참된 혁명가들("혁명가들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권위는 생명선") △수령의 구상과 의도, 명령지시를 어떤 조건에서도 어김없이 실천한 결사관철의 전형들

❍ 빨치산이 보여준 수령의 명령에 대한 투철한 입장과 자세 및 반당종파주의와의 비타협적 투쟁정신을 본받을 것을 특별히 강조

-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언제가도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관점 △전투과업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시각 견지

* "사령부의 로선과 어긋나는 잡소리들을 단호히 쳐갈기고 수령의 권위를 헐뜯는 종파분자, 타락분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건 무자비하게 징벌한 항일투사들의 비타협적 투쟁정신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다"

❍ **빨치산을 따라배워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당중앙 옹위를 위해 견지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양심으로 간직) △김정은의 위대성 체득 △김정은이 있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각인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중앙과 운명을 함께하는 참된 혁명전사, 영원한 동행자되기

- (김정은 중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 △김정은 결사보위 △김정은의 노작과 교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당중앙과 사상의 일치성, 행동의 통일성 보장 △집단주의 구호 하에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난관을 타개하는 특유의 국풍 발양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단위특수화, 본위주의 등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치는 현상과의 비타협적 투쟁

-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 결정들 무조건 관철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 전개) △금속, 화학공업 등 인민경제선행부문, 기간공업부문들에서 5개년계획 수행의 돌파구 열기 △건설부문, 농업, 경공업 등 모든 부문에서 연대적 혁신 일으키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며 생활향상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물 만들기 △자체의 튼튼한 과학기술역량 구축, 이에 의거한 증산투쟁 전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 구축, 자기 부문과 단위를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본보기단위로 만들기

-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의 충실성교양 심화) △김정은의 업적 각인을 위한 위대성교양, 충실성교양을 전면적이고 공세적으로 전개 △혁명전적지답사, 빨치산회상기 학습 등 혁명전통교양 강화 △청년들이 빨치산의 충실성을 본받아 전위투사가 되도록 준비시키기

//끝//